

**Journal of Korean American
Ministries & Theology**

No. 4
2011

Korean Preachers & Worship Leaders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www.webkam.org/journal

한미목회연구소
다리놓는사람들
*Building bridges
in all communities*



**KOREAN
AMERICAN
MINISTRIES**

WWW.WebKAM.org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Journal of Korean American
Ministries & Theology*

Number 4
2011

**Korean Preachers &
Worship Leaders**

Editor and Publisher

Paul Junggap Huh, Ph. D.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Decatur, Georgia

Editorial Associate

Daniel Adams
Decatur, Georgia

Advisory Board

Korean-American Professors in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

For any questions, subscription, and
articles please contact:

Tel. 404-687-4538

E-mail: huhp@ctsnet.edu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journal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Korean American Ministries
at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Korean American Ministries

701 S. Columbia Dr.

P.O. Box 520

Decatur, Georgia 30031

www.webkam.org

Prayer Mountains in Korea 한국 개신교 기도원 운동

Hee Chang Kang

Abstract

Today's Korean Prayer House Movement began since the liberation in 1945. The first prayer house was "Daehan Kidokko Soodowon" founded by Rev. Jaehyun Yoo and "Youngmoonsan Kidowon" founded by Na, Yoonmong. From that time, many prayer houses were built all over the nation. Especially since the Korean Civil War, their spirituality became more active and charismatic.

The prayer house movement is partly influenced by Korean shamanism. In the prayer houses, some practices are like what shamans do in their ceremony. However, the similarity between the prayer house and shamanism does not mean that prayer house is based on shamanism. Blessing is not the ultimate purpose of prayer, but the result of it. To try to manipulate God for blessing is shamanism. To try to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and to live as a little Jesus is more important. Therefore, people who are engaged in the prayer house movement should acknowledge where they are going between Christianity and shamanism.

One of the positive influences of the prayer house movement is that it provided spiritual experiences and comfort in the turbulent situations of the nation. This also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Korean churches. However, mystic tendencies of prayer house, emphasizing spiritual experiences, have dangerous aspects like spiritual arrogance and subjectivism. Moreover, the mass media have reported on social problems of prayer houses.

The very word to describe the Korean church is prayer. Prayer is a mystic spiritual behavior. Mystic character is essential in Christianity. Nevertheless, a well-guided and theologically-supported prayer movement is needed in the Korean church.

들어가는 말

한국 개신교회의 영성사를 논함에 있어서, 기도원 운동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서양의 수도원 운동은 한국에서 기도원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변형되어 자리 잡아왔고, 모질고 힘들었던 한국사와 그 맥을 같이 하면서 뿌리를 내려 왔다. 한국의 기도원은 때로는 구국을 위한 기도의 진원지 역할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극단적인 종교 운동이나 이단 운동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도원들을 획일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본 소고에서는, 한국 개신 교회사에 있어서 기도원 운동의 역사적 발전상을 돌아보고, 기도원 안에서의 기도의 형태들에 대해 논할 것이다. 또한, 기도원 운동과 샤머니즘의 영향에 대해 고찰 함으로써, 기도원 운동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들을 다룰 것이다.

기도원 운동의 태동 및 발전

한국 개신교 기도원 운동의 태동은 일제 말기 극심한 종교적, 정치적 탄압을 피해 개인 신앙인들이 산속이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신하여 개인적 신앙 생활에 몰두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은둔 기도처의 형태인데, 북한 지역에서는 '백산 산성 기도처', '금강산 기도처', '정주 오고동 약수터 기도처' 등이 유명하였고, 서울의 '삼각산 기도처'도 이름이 나 있었다. 이러한 개인 기도처가 한국 개신교 기도원의 발원지라고 간주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형태의 기도원은 8.15 해방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효시는 유재현 목사가 1945년 8월에 시작하여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군탄리에 세운 '대한 기독교 수도원'이다.¹ 유재현 목사는 일본 유학 후 1941년 귀국하여, 은거하다가 해방 후에는 기도원을 설립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부흥강사로 활약했다. 1945년 10월 5일에는 나운몽에 의해 경북 금릉군 어모면 능치동 274번지 일대의 기도처에 '용문산 기도원'이 설립되었다. 이곳 또한 한국 기도원 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용문산기도원은 한때 이단으로 정죄 받기도 했으며, 오늘날에는 '오순절 성결 교단'이라는 독립교단으로 변신하였다. 용문산 기도원은 24시간 이어지는 기도와 매년 여름에 실시한 초교파 공개 산상집회로 널리 알려졌다. 이후 전국적으로 기도원운동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특히 6.25 사변을 전후하여 혼란기에 확산된 성령운동의 여파로 많은 기도원이 건립되었다. 1947년 3백만 구령운동의 일환으로 박신출 장로의 서울 삼각산 제일기도원에서 박재봉, 김치선, 권연호 목사 등이 부흥집회를 가졌고, 이것은 기도원 운동의 큰 자극제가 되었다.

¹ 그러나 대한 수도원 2대 원장이었던 “전진” 전도사의 회고록 「눈물이 강이 되고 피땀이 옥토 되어」 (1994. 6. 15. 도서출판 줄과 추, 114-121)에서는 대한 수도원의 창립은 1945. 8월이 아니라, 1940년 10월로, 철원군 동송면 장흥리 교회 박형룡 목사의 기도 동지들이 조국 독립을 위한 기도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대한 수도원이 아니라 “조선 수도원”을 창립 했다고 한다.

일제 말기의 개인 신앙 은둔자들이나 개인 기도처의 생활에서 보듯이, 초기의 한국 개신교의 기도 운동은 전통적인 수도자들의 삶과 기도생활의 요소가 적지 않게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이라는 격동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수도원적인 형태는 많이 없어지게 되고, 동적이고 자극적인 부흥회 형태의 기도원 분위기로 정착되는 과정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한국 기독교 기도원 운동의 바탕이 서구 수도원 전통의 '금욕주의'에서 '성령운동'이나 부흥회적 신앙현상의 파급에 영향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고착되는 측면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때부터이다.²

그러나, 비록 소수이지만, 수도원 모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 수도 단체들도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엄두섭 목사가 설립한 “은성 수도원”은 그 좋은 예이다. 이 수도원은 경건의 모형, 고요한 기도생활의 전형적 형태 등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일면 전통적 가톨릭 수도원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공회 신부였던 대천덕이 설립한 “예수원” 또한 프로그램, 분위기,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 기존의 한국 기도원과는 형태를 달리하는 수도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1980년 5월 1일 설립된 한국 최초의 수도원적 개신교 여성 공동체인 “한국 디아코니아 자매회” 또한 일반적인 기도원 운동과는 다르게, 봉사와 공동체 생활을 통한 수도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독특하다고 볼 수 있다.

기도원의 기도 형태

1) 안수기도

안수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에서 나오는 기도 형태이다. 안수는 고대로부터 초대 교회,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널리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안수는 축복과 치유, 은총과 새 능력 받는 행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제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안수의 사용은 정당하다. 그러나 안수하는 자의 능력에 의하여 그 행위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원에서 행해지는 안수가 얼마나 성경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안수 기도를 하면서 도가 지나치게 되면, 안찰기도³라 하여, 아픈 부위를 손이나 기구로 심하게 구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잘못된 안수

² 김동덕. “한국 기도원(수도원) 운동의 역사적 조명”. 석사 학위 논문. 감리교 신학대학 신학 대학원, 1995.

³ 전용재. “대한 수도원의 성령 운동과 인간 회복 사역 고찰” 눈물이 강이 되고 피땀이 옥토 되어」 p.39

시행으로 인해 생명을 잃는 사태가 일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안수 기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수 기도의 잘못된 시행이 기도원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방언기도

방언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이다. 그러나 방언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오해로 인해,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은 방언을 받기 위해 애를 쓰며, 심지어 방언을 받게 한다고 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방언을 연습 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방언을 개인의 영적인 능력이라고 간주하고, 교회와 개인의 덕을 세우기 보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 내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상은 기도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훈련 없이 은사만을 사모하는 비정상적 신앙 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3) 금식 기도

금식 기도는 종교적 목적을 위해 일부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금식기도를 일부 기도원에서는 마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기도원에서는 금식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금식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자신의 거룩함과 하나님께 대한 봉헌 보다는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식은 자신의 거만과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참된 회개와 자기를 낮추고 겸손을 갖는 작업이다.

기도원 운동과 샤머니즘

"한국인의 사상은 비빔밥과 같다"고 하는 말이 있다. 한국 음식 가운데 전형적인 것이 비빔밥인데, 한국의 종교 역시 비빔밥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상의 밑바닥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토속신앙, 무교(샤머니즘)가 있다. 그 위에 일천 여 년에 걸친 불교사상이 얹혀있고, 또 그 위에는 오백 년의 유교 사상이 얹혀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와 서구의 사상들이 표면을 덮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다. 샤머니즘은 혼합주의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타종교에 스며드는 힘이 대단하다. 유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어느 종교든 접촉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스며들어 그 종교 자체를 변질시키는 것이 샤머니즘이다. 따라서, 한국 개신교의 기도원 운동을 논할 때, 샤머니즘의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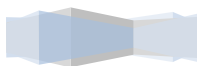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기도원 운동이나 소위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샤머니즘과 유사한 형태의 의식이나 생각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무당 굿하듯 부흥사를 불러다가 밤이 다하도록 소리쳐야만 믿는 것 같고, 시원하며, 그래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샤머니즘의 영향이다. 또한, 소위 기도원이나 부흥회에서, 회개 보다는 물질적 축복을 강조하고, 건축 등 타 목적에 집회를 이용하는 것 역시, 샤머니즘의 심성을 이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무당이 굿을 할 때 걸어놓는 '지전'이나 '현금'을 "별미"라 하는데, 감사보다는 기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현금을 강요하는 것 역시, 무속신앙적인 행태라 할 수 있다. 무당의 가무는 노래하며 춤추며 박수치는 가운데 신령과 교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위 '성령춤'이라 불리는 것과도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그것의 해소를 위해 교회 출석이나 현금을 강조하는 것 역시, 무당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다.

기도원이나 성령 운동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샤머니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성경에는 분명 방언을 말하고, 예배의 한 형태로 춤을 추고 하는 일들이 나온다. 따라서, 기도원에서 겉으로만 보이는 행위들 자체를 가지고 "샤머니즘의 영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그것들의 뿌리, 어떤 마음과 세계관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반성하고 연구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겠다. 기도원 운동에서 미처 자각하지 못한 샤머니즘적 영향력이 무엇인지, 깨어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성경은 수없이 많이 복에 대해 강조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이치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복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이 신앙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샤머니즘과 다를 것이 없다. 왜냐하면, 샤머니즘에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흘러 나오는 것이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모두 샤머니즘적인 것이다.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두드러지는 차이점 중의 하나는 바로 윤리 의식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윤리 의식도 자연히 약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도원 운동이든 교회든, 샤머니즘적인 사고와 행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것을 통해 작은 예수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기도원 운동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한국 기도원 운동이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첫째로, 해방과 6.25 전후의 사회적인 배경 하에서 불안한 각 개인의 심성에 영적인 체험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개인은 영적인 자제로 영적인 은사들을 추구하고 영적인 은사를 체험함으로써,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기도원은 바로 이러한 기도 운동의 진원지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도원 운동은 한국 교회의 양적 성장에 기여했다. 1970~80 년대에 들어서면서 불어온 성령 운동과 함께 기도원 사역은 확장되었고, 이러한 확장은 한국 교회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성도가 영적으로 회복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사모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체험은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이웃과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므로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전도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원 운동은 결국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원 운동에 긍정적 영향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기도원은 결코 교회'를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데도, 체험을 중시하는 기도원의 독점성은 위험성을 초래하였다. 또한 영적 체험을 중시하는 신비주의적 행태는 신학의 부재와 전통의 무시, 그리고 영적 교만이나 주관주의에 빠지는 우를 범하고 있다. 또한 이단적인 요소나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요소, 그리고 가정 파탄의 요소 등등이 사회적 측면에서 기도원의 폐해로 지적 받아 오고 있다.

나오는 말

한국 개신교회의 발전에 있어서, 기도원 운동은 그 맥을 같이 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족이 아픔을 겪을 때마다, 기도의 용사들은 한적한 산속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구국의 노력을 하였고, 그러한 열매들이 기도원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수도원 운동으로 발전해 왔다. 한국의 기도원 운동은 성령 운동의 부흥과 함께 크게 발전하였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에서의 신비 체험과 기도 생활을 통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 있었고, 그러한 영적인 성장이 결국엔 한국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기도원 영성의 특징은 지극히 편향된 개인성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유, 축복, 은혜 체험 등은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것들로, 기도원 자체가 역사적 혹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지나친 기도 생활이나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운영과 행태들, 그리고 이단 운동의 근거지 역할을 하면서, 기도원 운동은 전체 교회에 큰 부담을 지운 것도 사실이다.

한국 개신교의 기도원 운동에서, 샤머니즘적인 영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기적인 기복 신앙을 벗어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복은 신앙 생활과 기도의 궁극적 목적이 아닌 결과로써 추구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참된 기독교 윤리가 회복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에, 기도원 운동은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Primary Resources:

김홍수. 「한국전쟁과 기복신앙 확산 연구」. 서울: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 1999
민경배. 「한국 기독교 교회사」.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2.
서정민, "한국교회 영성사 이해." 「현대와 신학」. 서울 : 연세 대학교 연합 신학 대학원, 2001.
엄두섭. 「수도 생활의 향기」. 서울: 보이스사, 1992.
「신비주의와 그 사상」.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2.
최조영. 「눈물이 강이 되고 피땀이 옥토 되어」, 기독교 대한 수도원, 1994.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II」. 서울: 기독교문사, 1989.

Secondary Resources:

김동덕. “한국 기도원(수도원) 운동의 역사적 조명”. 석사 학위 논문. 감리교 신학대학 신학 대학원, 1995.
강찬기. “한국 기도원 사역의 평가와 개선 방안”. 석사 학위 논문. 침례 신학대학 대학원, 1998.
곽순희. “한국 기도원 운동에 관한 고찰”. 석사 학위 논문. 고신 대학 신학 대학원, 1996.
노봉옥. “한국 기도원의 분류 유형과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신 여자 대학교 대학원, 2001.
박혁식. “한국 기도원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고신 대학 신학 대학원, 1990.
신동성. “한국의 수도원 운동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장신 대학 신학대학원, 1993.
이 현. “기도원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 석사 학위 논문. 장신 대학 신학대학원, 1981.

